

'터치스타맨', 김영관에 6연패 안겨줄까?

(조교사)

올해 두번째 2000m...우승 유력후보 국산마 신흥강자 서울 '심장의 고동' 아버지 '지금이순간' 못 이룬꿈 도전 12전8승 서울 '카빙크로스' 다크호스

모처럼 관객이 입장한 가운데 경주가 열리고 있는 서울경마공원에서 일요일 또 하나의 빅매치가 열린다. 28일 서울 제8경주로 진행되는 '제17회 대통령배'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못해 아쉬움을 샀다. 올해 총상금 5억 원을 놓고 2000m 장거리 경주가 펼쳐진다. 3세 이상 국산마들로 대표되는 서울과 부산경남의 대표 경주마들이 출전을 앞두고 있다.

●[부경]터치스타맨(수, 4세, 한국, 레이팅 93, 승률 33.3%, 복승률 60.0%)

이번 대통령배 경주에서 경마 팬들의 관심을 끄는 이슈는 대통령배 통산 6회, 2015년부터 5연속 우승을 기록한 김영관 조교사가 올해도 대통령배를 차지할 수 있을지이다. 터치스타맨은 올해 유력한 우승 후보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에서 우승한 이후 올해 들어 2000m는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심장의고동(수, 5세, 한국, 레이팅 100, 승률 33.3%, 복승률 38.1%)

이런 대통령배 경주에서 경마 팬들의 관심을 끄는 이슈는 대통령배 통산 6회, 2015년부터 5연속 우승을 기록한 김영관 조교사가 올해도 대통령배를 차지할 수 있을지이다. 터치스타맨은 올해 유력한 우승 후보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에서 우승한 이후 올해 들어 2000m는 이번이 두 번째다.



대통령배에서 통산 6회 우승에 2015년부터 5연패를 하고 있는 김영관 조교사가 이번에 7번째 우승을 노리고 출전시키는 강력한 우승후보 터치스타맨. 2년 만에 열리는 대통령배에는 서울과 부산경남을 대표하는 3세 이상의 경주마들이 대거 나선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서울]홍행질주(수, 4세, 한국, 레이팅 98, 승률 41.2%, 복승률 52.9%)

2020년 코리아더비 3위, 같은 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3위를 기록한 이후 상위권을 놓친 적이 없는 꾸준한 성적이 강점이다. 가장 최근에 출전한 1400m 경주에서 8위라는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지만, 대통령배와 같은 2000m 경주였던 8월에는 4마신 차의 압승을 거뒀다. 2020년 대상경주 등 영광의 순간을

기수로서 함께 했던 이준철 조교사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 이준철 조교사는 이번이 대상경주 첫 승 도전이다.

●[부경]록초이스(수, 5세, 한국, 레이팅 98, 승률 33.3%, 복승률 45.8%)

원더풀플라이, 글로벌축제, 심장의고동 등 서울 소속의 강자들이 즐비했던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에서 우승해 부산의 자존심을 세운 경주마다. 장거리 위주로 출전해 상위권을 유지해 왔지만 대상경주에서는 부진했다. 재작년에 출전했던 대통령배도 11위에 그쳤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다실바 기수와의 호흡이 나쁘지 않다는 점이 기대를 높인다.

●[서울]카빙크로스(수, 4세, 한국, 레이팅 85, 승률 66.7%, 복승률 75.0%)

현재 12전 8승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보이며 단숨에 우승 후보로 떠오른 경주마다. 피스톨즈의 자마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연승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10월에 출전한 1등급 데뷔전에서는 6위로 기대에 못 미쳤다. 2000m는 첫 도전이지만 김동균 조교사-함완식 기수와 꾸준히 호흡을 맞추고 있어 이번을 일으킬 수 있는 유망주로 꼽힌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마사회, 취약계층 고독사 예방 기부금 전달



한국마사회는 25일 과천시청에서 취약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해 기부금 10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전달했다(사진). 전달식에는 송철희 한국마사회 회장 직무대행, 김종천 과천시장, 최은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지회 사무처장, 박찬정 과천시종합사회복지관장이 참석했다. 기부금은 과천시 소재 취약계층 130가구를 대상으로 안부방문, 월동용품 전달 등 고독사 예방사업에 사용된다. 마사회는 앞으로 1000만 원의 기부금을 추가로 마련해 더 많은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서 말산업 진로체험



한국마사회는 12월 2일까지 열리는 '2021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에 참가해 말산업 진로체험 비대면 콘텐츠(사진)를 선보인다. 한국마사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말산업 진로체험을 서울경마공원에서 진행해 8년간 3만50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박람회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vibetechreal.com)을 활용한 온라인 부스를 운영하며, 말산업 이색 직업을 소개하는 말산업 진로체험 영상콘텐츠를 선보인다. 말발굽을 제작하는 장제소부터 말 수염장, 동물병원, 도핑검사소 등 말산업 현장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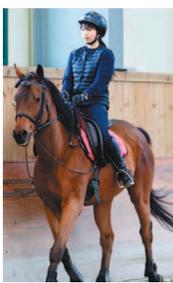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전설 경주마 '석세스스토리', 승용마 제2의 삶도 성공신화

한국경마 첫 두바이월드컵 3위 기록 수개월 조련 후 매일 사람들과 교감 "퇴역마 철저 관리 동물복지 힘쓸 것"

경마팬이라면 석세스스토리는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한국경마 사상 처음으로 두바이 월드컵 카니발에 출전해 세계적인 경주마들과 겨루어 3위를 기록한 말이다. 한국으로 '금의환향'한 후에도 부산일보배 우승 등 총 13억 원이 넘는 상금을 수득하는 주목할 성적을 기록했다.

경주마로서 충분한 성공 스토리를 이룩한 석세스스토리는 이후 승용마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2018년 7월, 7세의 나이로



석세스스토리

을 거친다. 석세스스토리는 성격은 매우 순했지만 소리에 예민했다. 승용마가 놀라면 기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소리에 적응하도록 조련했

다. 풍선 소리, 우산 펴는 소리, 비닐 소리를 들려주고 박수를 치면서 석세스스토리에 다가가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을 해 환경 소음에 적응시켰다.

소리에 적응한 석세스스토리는 바로 초급 회원과 교감할 정도로 승용마로서의 자질을 보였다. 2018년 11월 운산승마조련센터에서 승용마로서 데뷔한 후 현재까지도 하루에 1~3번 가량 운동하며 사람들과 교감하고 있다.

한편 한국마사회 장수목장에서 경주 퇴역마 승용전환 순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주 퇴역마를 목장에서 매일해 전문가들이 승용마로 조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 경주 퇴역마 순치조련 전문인

력을 초빙했다. 이들은 조련을 책임지며, 조련기술 민간보급을 위해 경주 퇴역마 승용 전환 협력 승마시설,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석세스스토리, 페르디도포머로처럼 우수한 경주마들도 승용마로 훌륭하게 적응해 여생을 보내고 있다.

경주 퇴역마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한국마사회는 경마 시행체이자 말산업육성 전담기관으로서 경주 퇴역마의 활용도를 높여 동물복지를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경주 퇴역마복지 기금을 조성해 경주 퇴역마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BRT(경주 퇴역승용마) 인증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추후 경주 퇴역마 복지 가이드라인 수립 등 동물복지 향상과 생활승마 저변 확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출딤

KMG 이석영대표, '월드 시리즈 오브 포커' 대회를 가다

전 세계에서 6500여명 모인 '설렘의 장' 색다른 긴장감·재미...잊지못할 감동

올해 88개 종목 열려...우승자엔 챔피언 팔찌 메인이벤트 한 종목 총상금 '1546억9000만원' 누구나 즐기는 포커대회, 반드시 한국 정착 다짐

전 세계 포커인들! 그 꿈의 무대가 펼쳐졌다.

2021년 제52회 월드 시리즈 오브 포커(World Series of Poker·WSOP) 대회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리오 호텔에서 9월 3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성대하게 펼쳐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전 세계 80여개국에서 6500여 명이 달하는 포커인들이 모여 뜨거운 열기를 뿜었다. 메인이벤트를 포함해 총 88경기가 열렸고, 모든 우승자에게 '브레이브슬릿'이라고 불리는 영광의 챔피언 팔찌가 수여됐다.

팔찌는 이 기간 중 총 14일 동안 라스베이거스에 머물며 4경기에 참여할 기회를 가졌는데 KMG 대표로서 많은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1970년에 처음 열린 이 대회는 처음 개최될 때만해도 마치 동호회 회원들이 모여 즐기듯 작은 규모로 시작되었으나 해를 거듭하며 성장해 현재는 전 세계 포커인들에게 꿈의 무대로 불릴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우승팔찌인 브레이브슬릿도 첫 해인 1970년 1개에서 시작해 1971년 5개, 1977년에 13개에 불과했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30개 이상의 종목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2004년부터 미국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이 생중계를 하면서 최고의 인기 스포츠로 각광받았다. 올해 88개 종목 중 메인이벤트 한 종목의 총상금만 1억3000만 달러(1546억9000만 원), 우승상금 800만 달러(95억2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 역시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경기장에 들어설



전 세계 출딤인들에게 꿈의 무대로 불리는 2021 월드 시리즈 오브 포커(WSOP) 대회에서 참가자들과 실력을 겨루고 있는 KMG 이석영 대표(가운데). 사진제공 | KMG

때의 설렘을 잊을 수가 없다.

2017년 KMG를 설립한 이후 수차례 국내 대회를 개최하면서 필자도 언젠가 꼭 꿈의 무대인 WSOP에 앉아보고 싶었다. 전 세계 다양한 민족, 인종들과 섞여 앉아 비록 말은 통하지 않을지라도 게임을 통해 서로의 뜻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실제로 게임을 진행하면서 받은 색다른 긴장감과 재미는 특별한 감동으로 다가왔

다. 특히 외국인들과 주고받는 카드 속에서 의미있는 메시지를 얻었다. 반드시 한국에서도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고 환호할 수 있는 대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이었다.

서양에서 포커는 3~4명만 모이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게임으로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은 지 오래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인드 게임. 여

기에 실력이 된다면 지역대회, 국가대회, 국제대회에 나가 명석한 두뇌를 뽐내고 부와 명예를 누릴 수도 있다.

팔찌는 이번 대회를 통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포커대회를 꼭 국내에 정착시키고, 현재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선 이들을 밝은 영역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더 힘을 쏟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이석영 KMG 대표이사